

技術移轉 및 開發促進戰略

과학기술처 진흥국장 金 澄 基

1. 新로운 環境속의 韓國經濟

얼마전 우리나라를 다녀간 「드러커」博士가 適切히 指摘했듯, 幼年期를 지나 青年期에 접어들 韓國經濟는 배울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先進諸國으로 부터의 新保護主義의 傾向에 依한 強力한 牽制, 資源保有國에 依한 經濟의 「내소날리즘」, 世界經濟에서 莫強한 힘을 行使하는 多國籍企業의 膨脹, 그리고 新經濟秩序를 標榜하는 後開發途上國家로 부터의 不斷한 危脅等의 國際的挑戰속에서 우리는 存續과 成長을 追求해야 하는 어려운 與件 속에 놓여있고, 한편 加速化되어가는 國際화의潮流와 汎世界化되어가는 開放經濟의 廣場속에서 國際競爭力의 強化와 對外交易의 擴大를 더욱 展開시켜 나가야 할 힘든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韓國經濟가 享有해왔던 低賃金이라는 比較優位는 顯著히 그 힘을 蘑어가고 있다. 첫째 經濟成長의 必然的結果로서 지난 10餘年間 労賃은 平均 20%水準 以上으로 引上되어왔고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豫見된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 臺灣等에 比해 労賃面에 있어서 오히려 不利해져가고 있고, 둘째 電子工業分野에 있어서 LST와 Microprocessor의 開發에 따라 거의 모든 機械 및 工程의 自動化가 可能해짐에 따라 労賃面에서 설령 아직 低廉하다 하더라도 先進國들이 가지게 될 이러한 自動機의 生產性에 따를 수 없게 되었고, 세째 從來의 所謂 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ur)狀態에서 漸次 制限의 労動供給(Limited supply of Labour)

狀態로 移行하는 徵候가 나타남에 따라 成長推進力으로서의 豐富한 人力도 그活用上의 制限을 받게까지 되었다.

한편 經濟發展의 沮害要因으로 看做되며 資本的側面에 있어서는 最近의 世界金融制度의 確立으로 必要한 資金을 언제나 調達해서 살수 있고 40億을突破한 外貨保有高가 오히려 問題가 되고 있으며, 內資調達도 制度的誘引措置만 잘되면 問題視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주어진 「與件」으로서의 労賃은 不利해진 反面, 「可用變數」로서의 資本은 큰 問題點 없는 것으로 된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 技術的要因이 무엇보다도 重要하고 核心的인 課題로 登場하게 된 것은 너무도 當然하다고 하겠다. 「 좋은 積極對外志向的 經濟構造의 深化가 不可避한 時代의 環境속에서 오로지 技術의 開發에 依한 技術爲主의 競爭力(Technology-Oriented Competitive Power)의 培養을 通해서만이 國際社會에서의 存續이 可能하게 되었고, 아울러 技術의 進步에 依해 資本生產性·勞動生產性·에너지生產性·素材生產性等 새로운 次元의 多元的 生產性을 劃期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을 때 만이 成長을 紹東받아 先進諸國을 追跡해 갈수 있을 것이다.

2. 技術革新을 위한 韓國的 接近方向

무릇 技術進步내지 技術革新은 새로운 技術을 採取(Adaption)하고 擴散(Diffusion)하는 速度와 새로운 技術을 受容(Acceptance)하고 活用(Utilization)하는 能力에 따라 正比例한다. 새로운 技術과 知識을 採擇하고 受容하는 過程은 技術移轉 特히 技術導入을 通해 外生的으로 아

技術移轉 및 開發促進戰略

투어지는 경우와 自主的 研究開發(Indigenous R & D activities)을 通해 內生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兩分할 수 있다. 1960年代를 通해 工業化에 成功한 日本의 경우와 外生的 技術革新을 이룩한 典型的 例示라고 한다면 美國을 비롯 英國·佛蘭西·獨逸等 歐美諸國의 경우는 內生的 技術革新을 誘導한 例라고 할 수 있다.勿論 歐美諸國도 外國으로부터 多量의 技術을 導入하여 왔지만 그들은 導入한 技術을 곧 自主的 技術開發의 內部「프로세스」에 融合시켜 發展시켰기 때문에 外生的이라기 보다 自主的이고 累積的 技術革新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重化學工業의 推進과 高度先進工業化를 野心적으로 展開하고 있는 우리 韓國은 技術의 蓄積은 적으면서 良質의 技術需要는 急增하고 있고, 自主的 研究開發을 위한 所要財源과 時間 및 人力의 制約은 크면서 技術革新에의 壓力은 莫重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로서는 우선은 先進諸國이 이룩해 놓은 研究開發成果를 通해 새로운 技術과 知識을 採擇하고 擴散함으로써 革新의 機會(Opportunity to innovate)를 外生的으로 創出하면서, 아울러 自主的 研究開發活動의 계속적 擴大強化를 土臺로 새로운 技術과 知識을 受容하고 生成할 수 있는 革新의 能力(Capacity to innovate)을 培養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技術開發을 위한 韓國的基本戰略으로서 技術移轉과 自主的 研究開發의 調和있는 併行推進을 繼續하되, 1980年代를 앞둔 닥아오는 10년을 2期로 나누어 前段階에 第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技術導入을 主軸으로 하여 外生的 技術革新으로 點火시키고, 後段階인 第5次 5個年計劃期間中에는 頭腦集約的 戰略產業을 中心으로 한 自主的 研究開發을 基盤으로 하여 先進技術의 選擇의 活用을 통한 自主的 技術革新을 誘導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戰後 數年間의 空白期間을 거쳐 不過 10年程度만에 先進國家列에 뛰어든 이웃나라 日本의 例를 그대로 模放 踏襲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처럼 短期間에 工業化를 이룩할 수 있었던 過程을 면밀히 分析하고 우리의 內外的 與件을 充分히 考慮할 때 위

와 같은 技術革新에의 基本接近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된다.

3. 技術移轉의 類型과 特徵

一般的으로 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이란 現存하는 技術이 그 所有者로부터 다른 곳으로 一定한 目的을 위해 移轉·傳播·受容되는 一聯의 過程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技術은 有型의 商品과는 달리 獨特하고 複雜한 屬性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存在形態도 各樣各色이기 때문에 그 移轉形態도 매우 多案하다.

먼저 그 有在形態를 보면 特許權·意匠權等의 工業所有權, 圖面·設計書·說明書·指導書·特殊機器·其他 技術資料等이 有形的 노우하우(Tangible Know-how), 그리고 人間의 頭腦에 體化된 專門知識이나 蓄積된 經驗·機械裝置等에 注入된 「소프트웨어」等의 無形的 노우하우(Intangible Know-how)等이 있다. 無形的 Know-how를 人間이나 機械裝置등에 內藏(Embodied)된 技術이라 한다면 有形的 Know-how는 外在的(Disembodied) 技術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各種의 有在形態를 取하는 技術의 移轉類型은 外國人投資·合作投資·純粹한 技術導入契約(工業所有權讓渡·實施權許與·資料 및 情報提供·技術者派遣·專門家招聘·研究開發契約等)·機械裝置의 購入· 턴키 플랜트導入·外國用役發注契約·科學技術 文獻入手·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의 誘致 및 參加等 여려가지가 있다.

이러한 技術移轉은 先進工業國家에서 開發途上國家로 垂直的으로 移轉하는 경우와 技術水準이 비슷한 國家끼리 水平的으로 移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國家와 國家間에 뿐만 아니라, 國內에서 企業相互間 特히 大企業과 中小企業間研究機關 또는 大學과 企業間等에도 技術移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技術移轉이 어떠한 形態를 取하는 間에 그것은 技術水準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存在하는 곳에서 存在하지 않는 곳으로, 또 比較優位性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移轉된다. 따라서 技術移轉이 發生하면 그前 狀

態에 比하여 量的·質的으로 技術水準의 補完向上을 招來하기 마련이다.

특히 技術移轉의 代表的形態인 技術導入은 一定한 契約下에서 뚜렷한 目的意識下에 이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利點을 갖는다.

첫째 企業의 側面에서는 技術開發에 所要되는期間을 短縮케 하고 費用을 節減케 해줌으로써 보다 빠른 期間·적은 費用·작은 리스크로 새로운 製品生產 또는 現存製品改良에 依한 品質向上을 可能케 하여 雇客을 創造하고 企業利潤을 높여준다. 戰後 日本의 高度成長를 결을 타고 躍進한 企業의 大部分은 海外技術導入에 依한 新製品을 成長의 基盤으로 하였다. 日立製作所·日本電氣·住友化學·松下電器·東洋레이온等이 모두 그러하다. 그들은 導入된 技術을 消化 改良하여 國內市場을 席捲하거나 技術提供에 다시 逆輸出 또는 第三國에 再輸出함으로써 莫大한 企業利潤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國家經濟的 觀點에서는 ①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通해 輸出增大를 促進시켜주고 輸入代替 또는 節減效果를 가져다 주며 ② 鎮工業分野의 集中的 技術導入을 通해 生產力增大와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寄與하고 ③ 技術情報의 吸收와 技術習得(Learning-by-doing)을 通해 技術人力의 訓練效果와 아울러 技術導入 關聯分野의 技術水準을 刺戟 向上시켜준다.

勿論 위와같은 技術導入이 갖는 效果는 適正한 技術(Appropriate technology)이 選定되어 適定한 條件으로 時所性에 맞추어 導入되어 질때

의 이야기이다. 만약 技術導入이 適切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적지 않은 不利益을 가져다 줄수있다. ① 企業으로 하여금 海外技術에의 지나친 依存傾向을 助長시킴으로써 獨創的인 自體 技術開發을 차단하게 하고 ② 國內市場이 狹少하기 때문에 技術導入企業이 亂竞争而 獨寡占的市場支配力を行使하게 되고 ③ 技術導入契約上の 不利한 條件으로 因해 비싼 技術代價·輸出制限等의 直接的인 被害를 입게되고 ④ 不適한 技術의 選定으로 因해 國內賦存資源의 非活用 또는 浪費를招來시킨다. 이와같이 技術移轉乃至 導入은 그 効果도 크지만 不利益도 많고 따라서 產業技術發展과 直結되기 때문에 國家政策的 次元에서 깊이 檢討되고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다.

4. 技術移轉 및 開發促進戰略

1. 技術導入規模의 量的擴大

1962年 外資導入法의 研究 實施斗 더불어 始作된 우리 나라 技術導入은 1967年頃부터 차츰增加趨勢에 있다.

그동안 技術導入이 技術開發能力의 蕩積 向上에 얼마나 寄與했는지正確히 말하기 어려우나 혼히 韓國經濟發展의 重要한 要因중의 하나로 指摘되는 外資의範疇속에 包含시켜 全體의으로 產業發展과 該當企業體의 成長에相當한 寄與를 해온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輸出 100億弗達成을

年 度	1962~69	70	71	72	73	74	75	76	合 計
件 數	170	82	45	49	62	80	93	109	690
(千 \$)	4,439.8	2,399.2	4,277.4	6,769.2	10,367.5	19,513.8	19,522.4	21,231.2	87,5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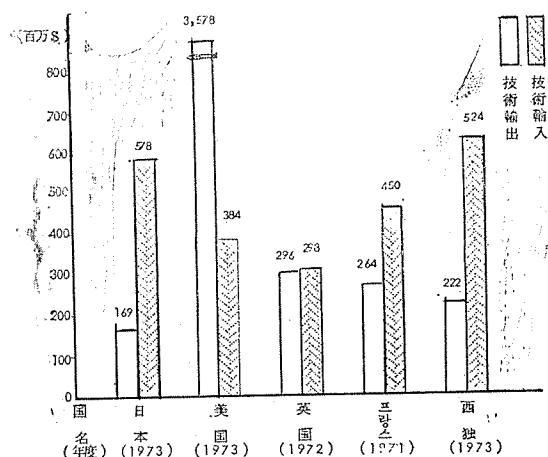
日本의 技術導入現況

年 度	1950~1955	1956~1960	1961~1965	1966	1967	1968	1969
技術導入件數	1,148	1,777	4,489	1,153	1,295	1,744	1,629

年 度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合 計
技術導入件數	1,769	1,529	2,403	2,450	2,093	1,736	25,214

技術移轉 및 開發促進戰略

主要國의 技術交易現況



눈앞에 둔 現今의 經濟規模나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高度產業化政策에 따른 莫大한 技術需要를勘案할때 海外로 부터의 技術導入規模는 現在보다 훨씬 擴大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의 경우 輸出 100億 \$을 達成한 1967年에 導入體數 1,295件에 로얄티支拂額 239百萬 \$ (輸出額對比 2.2%)이었는바, 우리나라가 輸出 80億 \$을 超過한 1976年에 導入件數 109件에 로얄티支拂額 21.9百萬 \$에 比하면 무려 10倍가 넘는 規模였음을 알수있다.

아래表에서 알수있는 바와같이 日本의 年度別 技術導入現況이나 美國·英國·佛蘭西·獨逸等 主要國家의 技術交易規模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훨씬 많은 技術을 導入해야 할 것인바, 適正規模의 所要技術을 定量的으로 算出하긴 어렵지만, 日本경우의 半으로 基準하드래도 앞으로 每年 最少限 件數로 500件以上, 로얄티로 輸出額基準 1%以上은 技術導入해야 할 것으로 判斷되고,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果敢한 施策과 賢明한 戰略이 切實히 要望된다고 하겠다.

2. 技術革新으로 連結되는 適正技術의 導入

海外技術導入이 技術革新에 成功的으로 誘導되기 위한 첫째 要件은 무엇보다도 適正技術의 選定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優秀한 人力과 頭腦를 最大로 活用할 수 있고 賦存資源을 最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으며 國家經濟의 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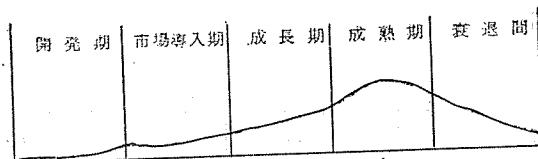
模와 構造에 가장 適合하고 技術의 價值가 上昇局面에 있는 適正技術을 選別導入하는 것이 技術導入問題에 있어서 先決課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技術導入이 ① 企業體의 技術評價 및 選別能力의 不足으로 低級 또는 落後技術을 導入하거나, ② 海外技術市場에 관한 情報源의 制約等으로 日本을 為主로 한 二次源으로부터 元本技術(Original technology) 아닌 複寫技術을 間接導入하거나, ③ 技術의 Life cycle中 成熟期가 지난 斜陽技術 또는 所謂標準化段階技術(Standardized product stage technology)을 導入함으로써 海外技術依存의 惡循環을 助長시킬 虞慮가 있는 技術導入도 過지아니 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政府는 이미 第4次 5個年計劃期間中の 導入必要技術에 관한 第1次調查事業을 通하여 總 1,758件의 技術을 選定 發表한바 있거니와, 이어서 第2次調查를 推進하여 重化學工業分野 3,000餘個 製品을 對象으로 한 追加導入必要技術을 選定함으로써 企業體로 하여금 適正技術을 選別導入할 수 있는 指針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이와 아울러 15,000餘件의 有用한 技術導入情報가 收錄되어 있는 Dr. Dvorkvitz & Associates 保有 마그네틱 테이프를 購入하여 韓國科學技術研究所附設 技術導入센타의 DataBase에 蕩積함으로써 元本의 適正技術을 導入코자 하는 企業體가 要緊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良質의 技術導入를 促進하기 為하여 아래의 製品 Life cycle中 市場導入期 또는 成長期에 該當하는 初期段階 技術을 優先的으로 導入토록하고 아울러 可能한限 開發期에 屬하는 技術도 政府保證下에 “測定된 危險”(Calculated risk)을 안고 果敢히 導入支援함으로써 技術技

製品의 라이프 사이클



新을 위한 새로운突破口를 마련토록 해야할 것이다.

위와關聯하여 멀지않은將來에 있어서의技術導入形式은 다음表와 같이 아이디어(着想)부터始作해서操業까지의段階중에可及의“5”까지는外國에서導入하되 그以後부터는國內에서開發 또는適用하는方式의技術導入型을積極發展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日本은外國에서Know-How을 가르쳐 받는安易한姿勢에서脫皮하고 아이디어段階나基礎 및應用研究段階에屬하는新技术을導入하여獨自의인開發과Industrialization試驗을 거쳐生產함으로써技術을導入해온先進國보다 오히려 앞질려갈수 있었다. 그代表의例가 트랜지스터(Tr), Polypropylene, Electro-Luminescence等인데, 日本이“배우되追越한다”는目標아래技術導入하여研究努力한結果短期間に西歐先進國의技術水準에能히到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技術의 分解導入追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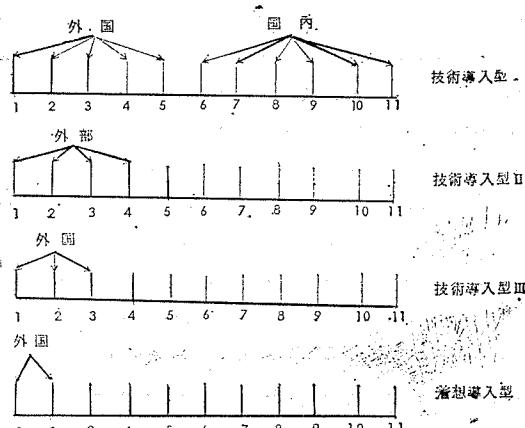
(Depackaging Policy)

기술은흔히 그것이 갖는相互結合性이나 하드웨어等에混入되는體化性, 그리고技術導入者의對象技術에對한關聯知識 및情報의缺如와交涉能力(Negotiating power)의貧弱等으로해서一括去來形態(Package deal)를一般化시키려든다. 우리나라도例外는 아니어서從來資本財에附隨 또는含有된從的技術導入이나 텐키式一括導入等이 적지 아니하였다. 따라서앞으로는資本과技術,核心技術과周邊技術, 그리고技術Package의여러投入要素를可能한限 철저히分解해서 가장核心의이고價值있는技術을一次源으로부터組織의으로導入해나가야할 것이다. 이에는勿論前提條件이 있다. 技術Package의投入要素를正確히分解할 수 있는能力,周邊技術이發達되어抽出된核心技術을빨리吸收할 수 있는能力,代替可能한技術에對한充分한情報源과強力한協商能力 그리고技術導入前의完璧한準備態勢等이다.

主要生產品中 80%以上을導入技術에 바탕을 두고 있는日本의石油化學工業이初期의導入技術依存期와 그以後의吸收改良期를 지나 오늘날의獨自의인石油化學技術開發期까지長足의發展을 할 수 있었던根本的要因은 위에서본 철저한分解導入政策이發効했기 때문인 것으로알려져있다. 그들은政府와業體 그리고業體相互間에情報を交換하면서共同努力을形成하고強化된協商能力을背景으로하여一括技術을內容別로 철저히分解하여基本의이고核心의技術은導入吸收하고周邊技術等은自國의엔지니어링會社들을通해供給解决하면서石油化學技術을完全히土着化시켜나갈수 있었던 것이다.

4.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의 提高 와導入技術의改善促進

技術導入의決定的成敗는導入後의消化·吸收와改良·發展에 달려있다. 우리나라技術導入의 경우大部分이그것의直接의인適用에그치고消化·改良을위한研究開發努力이나efficiency



1	2	3	4	5	6	7	8	9	10	11
着想	基礎研究	開発研究	應用研究	評價試験	量產試作	設計	製造技術	生産	試驗	販賣 (Operation) 操業

技術移轉 및 開發促進戰略

의인 事後管理體制가 따르지 못하여 技術導入의 波及效果가 폐 制度의인 것으로 되어왔다.

다시 日本의 경우에 對한 野村研究所의 調查 分析에 따르면 1954年부터 1964年사이 導入技術 이 件當 トヨタ가 42百萬圓이었는데 比해 그것의 消化改良費는 件當 58百萬圓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同期間內의 代表의인 高度成長品目 70個中 自體技術만으로 成長한 것이 13%, 外國技術에 依해 成長한 것이 12%, 나머지 75%는 모두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으로 成長한 것이었고 아울러 全體導入技術의 消化改良率이 55%, 特히 化纖·電子·通信·電氣機器 自動車分野의 경우는 70%以上인 것으로 眼히지고 있다. 앞에서 참작言及한 트랜지스터技術이나 나일론技術같은 것은 美國으로부터 導入했으나 完全히 消化改良하여 日本獨自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 LD法이라는 製鋼技術을 오스트리아로부터 導入하여 數年後에는 日本이 世界最大의 生產을 자랑하고 技術提供者의 技術水準을 훨씬 앞질렸던 것은 좋은 事例들이다.

政府는 우리나라 研究開發投資의 大宗을 우선은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으로 誘導시켜야 할 것이며, 그一環策으로 技術導入業體를 위해 IBRD資金을 主된 財源으로 300億원 規模의 回轉基金을 設置하고 消化改良을 위한 長期·低利의 資金支援을 해주는 同時に 技術導入業體로 하여금 技術開發準備金을 積立토록 하여 導入技術의 消化改良研究費를 同準備金에서 利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한편 韓國科學技術研究所附設 精密機械技術센터와 鑄物技術센터 또는 電子技術研究所나 化學研究所等의 企業型 戰略研究所들을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을 위한 中間媒體機關으로 積極 活用해 나가도록 하고, 技術導入者가 消化改良研究를 同 中間媒體機關들에 委託할 때 所要研究費의 相當部分(例: 50% 以上)을 上記回轉基金에서 支援토록 할 것이다. 窮極의으로는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은 國內技術開發體制를 바탕으로 한 吸收能力과 吸引力(Pulling factor)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強化에 最大的 政策의 力點을 두는 同時に, 導入後의 組織의in 事後評價 및 管理體

制를 確立해서 技術導入後의 問題點抽出·補完·支援策을 具體的으로 講究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5. 中小企業을 위한 技術移轉 및 開發支援

지금까지의 技術導入은 大部分 大企業體에 偏重되어 왔고, 中小企業의 경우 自體의 技術吸引能力 및 資金面에서의 劣弱과 技術導入經驗不足 및 交渉能力等의 缺如로 技術導入이 活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全體企業數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絶對的 優位性이나 產業發展에 있어서 遂行하는 바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앞으로는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위한 政策的 支援을大幅 強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強調되어야 할 것은 共同體制에 依한 技術導入 및 開發制度이다. 일찌기 先進諸國들은 英國을 비롯 歐羅巴各國의 研究組合制度(Research Association), 獨逸의 工業研究聯盟(A.I.F.) 그리고 日本의 鑄工業技術研究組合制度等을 通하여 研究費를 共同으로 負擔하는 한편 政府로부터 稅制資金上의 支援을 받아 共通의 隘路技術을 解決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現行 技術開發促進法의 改正을 通해 同種 先進技術의 一括導入 및 配分과 消化改良 그리고 共同의 研究開發活動을 遂行하되 이를 위해 適切한 稅制支援과 더불어 必要한 資金支援을前述한 回轉基金으로부터 提供받도록 할 것이다.

한편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系列化乃至 技術的 統合(Technological integration)을 制度의 으로 俱現함으로써 一種의 垂直的 技術移轉을 促進시키고 아울러 中間媒體機關으로서의 各級 研究機關과 上記의 研究組合 또는 各個의 中小企業體들間의 連繫를 通해서 國內에서도 技術移轉이 組織的으로 展開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適正技術 選定하여

技術革新 이룩하자